

한국 초등학교의 특별활동의 동향

다나카, 미쓰하루
큐슈대학 대학원

<https://doi.org/10.15017/2198467>

出版情報 :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6, pp.79-87, 2006-03-15.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バージョン :

権利関係 :

한국 초등학교의 특별활동의 동향

다나카 미쓰하루 (큐슈대학 대학원)

연구배경

최근의 사회 변화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반면에 정신적 빈곤화를 초래했다. 아이들의 여러가지 문제행동의 근본원인으로 인간관계의 소원함, 사회성의 저하, 규범의식의 저하등을 들 수 있다. 제15기 중앙교육심의회 답신⁽¹⁾에서는 학생의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의 저조함과 기본적인 윤리성이나 규범의식의 부족함에 대한 원인으로 학생들의 생활태도 중에서 사회성의 부족함과 윤리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한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2005년도 대학입시 때의 조직적인 집단부정사건, 고등학생들의 대규모 집단 성폭행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초등학교(일본에서는 소학교가 해당) 학생까지 성폭행에 가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학교현장은 학력 편중의 경향이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여유” 노선에 대한 재편성에 의하여 더욱 더 그러한 경향이 강해질 우려가 있다.

특별활동은 바로 이런 학생들의 사회성 육성에 중점을 둔 영역으로 “집단”을 통한 교육활동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학교현장에서는 특별활동에 대한 관심이 낮고 충실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총합적인 학습의 시간”이 신설된 후에는 그 경향이 더욱 더 심해지고 있다.

한국 교육도 마찬가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 같이 미국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고 민주주의 이념 아래 발전해 왔다. 현재 한국은 교육열도 교육의 수준도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총생산비 가운데 학교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6.6%)을 보면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가교육과정이 정해져 있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다. 한편, 교육풍토 및 교육제도는 일본과 비슷하며 “이지메”나 교실붕괴, 폭력, 비행 증가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의 주제가 되어 있는 특별활동도 한국과 일본 양국 같은 이름 아래 비슷한 활동내용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특별활동을 다시 생각할 때 교육제도, 또한 거기에 생길 교육문제가 비슷한 나라의 특별활동을 보는 것이 가장 참고가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의 특별활동은 최근에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본 보고는 한국 특별활동의 변천 과정 및 현행 특별활동에 대하여 초등학교 국가기초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일본 특별활동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의 검토

외국의 특별활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는 국립교육정책연구소가 간행한 “도덕, 특별활동 커리큘럼 개선에 관한 연구”⁽²⁾나 히로시마대학교가 중심으로 연구한 “세계 특별활동에 관한 연구”⁽³⁾를 들 수 있다. 전자는 도덕과 특별활동에 대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9개국을 대상으로 그 개

(1) 中央教育審議會答申「21世紀を展望した我が国の教育の在り方について」, 1996年.

(2) 国立教育政策研究所『道徳・特別活動カリキュラムの改善に関する研究-諸外国の動向-』, 2002年. 国立教育政策研究所『道徳・特別活動カリキュラムの改善に関する研究-諸外国の動向(2)-』, 2004年.

(3) 吉田正晴他「『特別活動』に関する国際調査」, 日本比較教育学会『比較教育学研究』第19号, 1993年, pp.113-127. 福伊智他「世界の『特別活動』に関する基礎資料-初等教育を中心として-」, 広島大学教育学部紀要, 第1部, 第41号, 1992年, pp.133-142.

략이 정리되어 있다. 후자는 “특별활동”에 관한 설문지를 통해 각국 교육기관 및 관계청에 의뢰·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사연구이다. 이 두 가지 연구는 일본 “특별활동”을 구성하는 모든 활동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또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를 밝힌 점에서 귀중한 연구들이다. 이 연구에서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특별활동”에 해당하는 영역을 특설하고 있는 국가는 너무 적었고 이 조사 결과에서는 “단체활동”이라는 일본 특별활동과 비슷한 영역이 있는 대만과, 일본 특별활동과 같은 이름의 영역이 설치되어 있는 한국의 두 나라 뿐임을 알 수 있다.⁽⁴⁾

그 중에도 한국 “특별활동”은 그 내용도 비슷하고 비교대상으로서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1997년에 개정된 현행 제7차교육과정에서는 대폭적인 개혁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특별활동 영역에서 현저하게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 “특별활동”의 역사적변천을 알아보고, 현행 “특별활동”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2. 한국 특별활동 역사적 변천

(1) “특별활동” 성립 이전

한국에서는 “특별활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신라의 화랑, 조선시대의 성균관, 개화기의 배재학당을 비롯한 근대학교에 오늘날의 특별활동의 하나인 자치활동이라는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이 있었다. 신라의 화랑은 소년 수련소 혹은 보이스키우트와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성균관에서는 “士氣는 나라의 原氣” 라며 “성균관 유생의 정당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치활동을 장려했다.

“정치가 잘못되는 경우 규간(規諫)과 탄핵을 할 자유를 주어 유생들은 곧 책임원을 뽑아 사무를 분장하고 동협실(東挾室)에 모여 임시 사무소를 두고 조직적으로 상소할 일을 계획·진행하였다” 고 했다.⁽⁵⁾

또한 한국 최초의 근대학교로 알려져 있는 1885년에 미국 북감리교선교부가 설립한 배재학당은 과외활동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의 과외 활동으로서는 연설회나 토론회와 같은 사상발표회와 야구, 축구, 정구 등 스포츠 연습이 있었다.

이것은 특별활동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설립되기 이전부터 그것과 비슷한 활동이 장려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미군정하에서 특별활동이 도입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제1차 교육과정 (1954~1963년)

한국 교육은 1945년8월15일, 35년간에 걸친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어 미군정에 의한 과도적인 조치에 의해 교과목이 편제되고 교수요목이 작성·운용되게 되었다. 1948년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어 헌법에 규정된 “홍익인간” 이념 아래 1949년 12월 31일 법률86호로 한국 최초의 교육법이 공포되었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에는 전쟁이 발발하여 당시 급무였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실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4) 「特別活動」에 포괄되는 제 활동을 교육과정 안에 설성한 국가도 있다. 吉田正晴 他「特別活動」に関する国際調査, 比較教育学会編『比較教育研究』第19号, 1993年, pp.113-127참조.

(5) 韓基彦著, 井上義巳訳『韓国教育史』広池学園出版部, 1965年, p.100.

공포된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이다. 1954년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 제6조에서는 특별활동의 정의와 예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⁶⁾

第6条 本令에서 特別活動이라 함은 教育目的 및 教育目標를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教科以外 其他活動을 말한다.

特別活動은 다음 各号의 一에 該當하는 것이어야 한다.

1. 集会其外民主的 組織下에 運營되는 學生活動에 關한 것.
2. 學生의 個人能力에 依한 個別成長에 關한 것.
3. 職業準備 및 利用厚生에 關한 것.
4. 學生 趣味에 關한 것.

1954년 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령에 특별활동이 등장한 배경에는 프래그머티즘 교육이론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952년에 내한한 제1차 미국교육사절단은 전국 교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이론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미국민주주의 교육을 한국 교육현장도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1953년에 설립된 중앙교육연구소는 설립과정에 있어서 미국 교육사절단과 운쿠라 유네스코교육사절단에 의한 원조가 컸고 동 연구소를 통하여 듀이의 교육이론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문교부는 1954년에 제정한 각급학교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령에 있어서 특별활동을 국민학교 각학년에 20분에서 최대120분, 중학교에는 주당 2시간 혹은 3시간, 고등학교에 주당 2시간을 배분하고, 과외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후, 1955년 8월 1일에는 문교부령 제44호 라는 “교과 과정” 이 공포되었지만 교과 활동에 대한 기술만 있고 특별활동에 관한 기술은 없었다. 따라서 제1차 교육과정기에 있어서의 특별활동에 관한 공적인 기술은 1954년 기준령의 것이 유일하다.

(3) 제2차 교육과정 (1963~1973년)

이 시기는 1961년 5월 16일에 군사혁명이 일어나 혁명정부가 9월 공포한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에 의해 교육 관계법의 일부가 기능하지 않게 되는 등 결코 안정된 시기가 아니었다.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 119호로서 개정된 “교육과정”은 제1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과정의 영역을 교과 활동, 특별활동, 반공·도덕 활동의 3 영역으로 나눈 점으로 명실공히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렇지만 앞에 적은 바와 같이 5월 16일에 일어난 군사혁명 이후 “반공을 국시의 제일에 둔다” 라고 하는 혁명정부의 공약 아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반공·도덕”이 특설 영역으로서 자리 매김되고 있어 이 “반공”이 제2차 교육과정의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별활동에 관한 기술에서는 특별활동의 목표, 내용, 운영상의 유의점을 제시했다. 특히 영역을 1.학급 활동 2.아동회 활동 3.클럽 활동의 3개로 명확히 구분해, 비교적 특별활동의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68년 12월 5일에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된 것으로 문교부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구현화하기 위해서 1969년 제2차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한다. 이것에 의해 각 학교 교육 과정은 “반공·도덕”영역이 교과 활동인 “도덕과”로 편성됨에 따라 교과 활동과 특별활동의 두개영역으로 개정된 것은 물론 특

(6) 文敎部令第35号 『教育課程時間配當基準令』, 1954年

별활동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표 1(후계)에서 보여지듯이 개정 전의 학생 개인의 개성 신장, 개인의 취미 향상등의 중심 목표가, 개정 후에는 공민으로서의 소양의 함양, 국가의 발전에의 기여라는 목표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활동의 주당 시간 배당도 증가해 대폭 강화되었다.

(4) 제3차 교육과정 (1973~1981년)

제3차 교육과정은 1973년 2월 14일에 문교부령 310호에 고시되었다. 특별활동의 목표는 제2차 교육과정 부분 개정 이후의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었다.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는 “반공·도덕”이 특별활동의 영역에서 교과영역으로 이행된 것에 의해 교과 활동과 특별활동의 2대영역이 되어, 특별활동의 영역은 1.학급활동 2.아동회활동 3.클럽활동 4.학교행사의 4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학교행사가 특별활동의 한 영역으로서 삽입된 것은 크게 달라진 점이다. 일본의 학습 지도 요령에 있어서의 “학교 행사”에 관한 기술이 1958년에 등장하고 있는데 일본과 비교했을 때 약간 늦은 감이 있다. 활동 내용은 1.의식 2.학예행사 3.보건체육행사 4.소풍행사 5.안전지도행사의 5항목으로 오늘날 교육과정의 원형이 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특별활동의 목표는 “사회성의 신장,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 태도,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생활 태도, 개성의 신장, 원만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격함양, 근로 애호”이다. 그리고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의 학년별 목표를 설정해 1학년, 2·3학년, 4·5학년, 6학년에 의해 특별활동의 목표를 세분화시키고 있는 점에서도 크게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5) 제4차 교육과정 (1981~1987년)

제 4 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국민 정신 교육의 체계화, 인간 교육의 강화, 진로 교육의 충실화이며 특히 인간 중심 교육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서 초·중·고에 있어서의 특별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제4차교육과정에서의 특별활동의 목표는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목표와 다른 구성이 되어 있다. 특별활동의 목표의 구성은 제3차까지는 일반 목표를 단지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던 것을, 제4차에서는 목표를 총괄목표와 그 총괄목표에 대응한 하위목표로 나누어, 총괄목표를 1문장으로 제시했으며 하위 목표를 몇 개의 항목에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4차의 개정에 의해 특별활동은 비약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그것은 현행 특별활동의 원형이 되었다. 제 4 차 교육과정의 특별활동의 영역은 어린이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의 세개영역이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어린이회 활동이란 학급활동과 아동회 활동을 통합한 것이다.

또 제4차 교육과정으로부터 1·2학년의 교과를 3영역으로 통합·신설하였다. 즉, “도덕” “국어” “사회”를 통합하여 “올바른 생활”, “산수”와 “자연”을 통합하여 “즐거로운 생활”, “체육” “음악” “미술”을 통합하여 “즐거운 생활”라는 교과서를 작성한 것이다.

(6) 제5차 교육과정 (1987~1992년)

제5차 교육과정에서 제일 현저한 변화는 제4차 교육과정기에 창설된 1, 2학년의 통합 교과중에서 “도덕” “국어” “사회”의 통합교과로부터 “국어”를 독립시켜 나머지를 “올바른 생활”이라고 하였으며 “자연”과 “산수”의 통합 교과로부터 “산수”를 독립시켜, 나머지를 “즐거로운 생활”이라고 했다. “음악” “미술” “체육”의 통합교과의 경우는 변함없이 “즐거운 생활”이라고 했다. 이것은 제 4 차 교육과정에서 “산수”와 “국어”를 통합교과로 함에 따라 학력이 저하했다는 지적에 의해 재편성된 것이다. 그리고 제 1 학년의 입학(3월)으

로부터 한달간은 초기 학교 적응을 위한 준비 교육을 종합적으로 행하는 “우리는 1학년”이라는 과목이 신설되었다. 특별활동의 내용, 목표에 관해서는 제4차와 변함이 없다.

(7) 제6차 교육과정 (1992~1997년)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제3학년로부터 제6학년까지 “학교 재량 시간”이 주1시간 설치되어 학교에서 자유롭게 특정의 교과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학년의 통합 교과가 재편성되었다. “올바른생활”의 경우 제5차에서 “도덕”과 “사회”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도덕”에만 한정시켰고, “사회”는 “자연”과 통합시켜 “즐거로운 생활”이라고 했다.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특별활동의 “성격”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 목표를 보면 총괄 목표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두에서 특별활동의 방법적인 원리로서 “집단 활동”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 활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협동·봉사의 정신과 자율적인 생활 태도를 기르게 하는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수반해 집단 생활에의 적응(학급 활동), 공동체 의식의 함양(학교 활동), 창의성과 사회성의 신장(클럽 활동)을 강조한 하위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3. 한국 특별활동의 새로운 방향

한국의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되어, 초등학교는 2000년 3월 1일, 중학교는 2001년 3월 1일, 고등학교는 2002년 3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제7차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초등학교 1학년으로부터 고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기간으로 설정해, 학년제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일관성이 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또 학생의 능력과 개인차에 따라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단계형,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되고 있다.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재량 활동”의 시간을 확대 신설하여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과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 등 다양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에서 특별활동의 영역도 크게 바뀌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급·학교·클럽 활동의 3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던 것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영역을 1.자치 활동 2.적응 활동 3.계발 활동 4.봉사 활동 5.행사 활동의 5개에 편성하고 있다. 이것은 활동 집단(범위)을 중심으로 영역을 설정했던 제6차 교육과정에 대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활동 목표(내용)를 중심으로 영역을 설정한 것이다. 또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3 영역(학급 활동, 학교 활동, 클럽 활동) 그리고 고등학교는 네개 영역(학급 활동, 학교 활동, 클럽 활동, 단체 활동)이라고 하는 학교 단계별로 영역 설정을 구분하고 있었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도입에 수반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단계에 있어도 공통의 영역을 설정한 것이다. 그 대신, 각 학교 단계에서 중점사항을 정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특별활동에서는 아동의 기본 생활 습관과 자율적인 생활 태도의 형성에 중점을 두며, 중학교에서는 왕성한 활동력과 다양한 욕구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원만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자기의 발견과 확립, 사는 힘과 지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등을 체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특별활동의 목표는 총괄 목표와 하위 목표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다양하고 건전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 신장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기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한다”고 하는 총괄 목표 아래에 “(가)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담, 수행하고, 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

를 지닌다. (나)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신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한다. (다) 계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질서를 배우고, 협동심을 기르며,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 신장함으로써 자아 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라) 봉사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 (마) 각종 행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가진다” 고 하는 하위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목표와 비교해보면, 모두 “집단 활동” 을 통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점, 게다가 개성의 신장과 집단의 일원(한국에서는 공동체 의식,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기른다고 하는 점에서도 공통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영역의 설정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종래의 “활동 집단(범위)” 를 축으로 한 시점으로부터 “활동 내용” 을 축으로 한 영역 설정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했다고 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 한국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으로부터 특별활동의 “성격” 이 명시되고 있다. 이 “성격” 은 특별활동의 의의를 명시했다는 면에서 중요한 것이다.⁽⁷⁾

전술한 것처럼 활동의 내용면에서 일본과 한국의 두드러진 차이는 일본의 경우 집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1) 자치활동

자치 활동은 “학급이나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 따라 협의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 이다. 일본의 “A 학급 활동” 과 “B 아동회 활동” 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목표는 1. 학급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제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 실천하는 가운데 자주성과 사회성을 기른다. 2. 다양한 실천과 협의 경험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기본 원리를 익힌다. 3. 역할 수행을 통하여 일에 대한 기쁨을 맛보고, 학급 또는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라고 제시되어 있다.

활동별 내용은 1. 협의 활동 (학급회 ·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학급 전반에 필요한 사항 협의 등) 2. 역할 분담 활동(1인1역활동, 학급 부서 활동, 운영 위원회 활동 등), 3.민주 시민 활동(애향반활동, 모의 의회, 토론회, 대화의 광장) 4. 그 밖의 필요한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2) 적응활동

적응 활동은 “학교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자기 주도적인 활동” 이다. 초등 학교에서의 적응 활동은, 기본 생활 습관과 건전한 인간 관계의 형성을 통하여, 명랑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A 학급 활동(2)” 에 해당하는 것이다.

적응활동의 목표는 1. 집단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본 생활 습관을 몸에 익힌다. 2. 친구 및 협동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교우 관계를 형성한다. 3. 자신의 문제를 상담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명랑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한다. 4. 진로와 직업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 설계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다.

(7) 教育人の資源部 『第7次教育課程 教育部告示第1997-15号 別冊2 初等学校教育課程』, 1998年, pp.348-349.

활동별 내용은 1.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예절, 준법, 질서, 절제, 청결, 정리·정돈, 근검 절약 등) 2. 친교 활동(축하회, 위로회, 친목회, 사제 동행 등) 3. 상담 활동(학습, 건강, 교우, 클럽 선택, 여가 활동, 기타 개인적인 문제 등) 4. 진로 활동(직업 세계의 이해, 진로 인식, 진로 탐색, 진로 설계 등) 5. 정체성 확립 활동(자기 이해, 심성 계발 등) 6. 그 밖의 필요한 활동으로 나누고 있다.

(3) 계발활동

계발 활동은 “흥미, 취미, 적성이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 능력과 창의성을 계발, 신장시켜 나가는 자율적인 활동”이다.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길러 원만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C 클럽 활동”에 해당한다.

계발활동의 목표는 1. 흥미, 취미, 적성이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거움 속에서 삶의 질서를 배우며 협동심을 기르고, 원만한 인간 관계를 형성한다. 2.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 신장하고, 자아 실현의 기초를 닦는다. 3. 여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생활습관을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다.

활동별 내용은 1. 학술 문예 활동(문예, 연극, 방송, 음악, 미술, 전통 예술, 외국어 회화, 과학 탐구, 사회 조사 등) 2. 보건 체육 활동(육상, 구기, 수영, 체조, 무용, 민속 놀이, 씨름, 태권도 등) 3. 실습 노작 활동(사육, 재배, 조정, 목공, 제도, 설계, 조리, 수예, 재봉 등) 4. 여가 문화 활동(등산, 사진, 독서, 영화, 꽃꽂이, 원예, 기악, 서예, 바둑, 장기 등) 5. 정보 통신 활동(컴퓨터 통신, 인터넷, 신문 활용 학습, 국제 이해 활동 등) 6. 청소년 단체의 활동(소년 소녀단, 청소년 연맹, 적십자, 우주 정보 소년단, 해양 소년단 등) 7. 그 밖의 필요한 활동으로 나누고 있다.

(4) 봉사활동

봉사 활동은 “자발적인 의도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무보수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다. 교육과정에서는 “봉사 학습”에 가깝다고 여겨지고 있다. 즉, 학생들이 하는 봉사 활동은 그 활동이 가져오는 결과 자체보다는 활동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교육적인 의의가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일본은 “D 학교 행사(5)”에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기술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봉사 활동을 특별활동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봉사활동의 목표는 1. 지역 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호혜 정신을 기른다. 2. 다양한 봉사 활동의 실천으로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기르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진다. 3.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활동별 내용은 1. 일손 돕기 활동(복지 시설의 일손 돕기, 공공 시설 일손 돕기, 병원 일손 돕기, 농·어촌 일손 돕기, 학교내 일손 돕기) 2. 위문 활동(고아원 위문, 양로원 위문, 장애인 위문, 병약자 시설 위문, 부대 위문 등) 3. 캠페인 활동(공공 질서 확립 캠페인, 교통 안전 캠페인, 학교 주변 정화 캠페인, 환경보전 캠페인 등) 4. 자선 구호 활동(재해 구호, 불우 이웃 돕기,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등) 5. 환경·시설 보전 활동(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 보호, 문화재 보호 등) 6. 그 밖의 필요한 활동으로 나눌 수 있고 있다.

(5) 행사활동

행사 활동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의식, 학예, 보건·체육, 수련, 안전 구호, 교류 활동 등과 같은 교

육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는 자발적인 활동”이다. 행사 활동은 학교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소속감을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교육적인 의의가 크다고 여겨지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기르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일본의 “D 행사 활동”과 거의 흡사하다. 활동 내용에 “교류 활동”이 명기되어 있는 점은 한국 특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사활동의 목표는 1. 교내·외에서 실시되는 여러 행사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2. 학예와 체육 등 행사 활동을 통하여 평소의 학습 성과를 창의적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협동 및 봉사의 정신과 연대 의식을 높인다. 3. 학교 밖의 자연과 문화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풍부한 감성을 지닌다. 4. 각종 수련 활동에 참여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며, 극기의 정신과 진취적 기상을 기른다. 5. 지역간, 국제간의 다양한 인적 교류를 통하여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한다 라고 되어 있다.

활동별 내용은 1. 의식 행사 활동(경축일, 기념식, 조회, 졸업식, 시업식, 종업식 등) 2. 학예 행사 활동(전시회, 발표회, 감상회, 학예회, 경연 대회, 실기 대회 등) 3. 보건·체육 행사 활동(신체검사, 건강진단, 예방접종, 체육 대회, 친선 경기 대회) 4. 수련 활동(소풍, 수학 여행, 문화재·명승지 답사, 학술 조사, 해외 여행, 등산, 야영, 하이킹, 국토 순례, 탐사 활동, 극기 훈련 등) 5. 안전 구호 활동(안전 생활 훈련, 대피 방호 훈련, 재해 구조 활동 등) 6. 교류 활동(자매 결연 활동, 도시·농촌 교류, 국제 교류 활동 등) 7. 그 밖의 필요한 활동으로 나누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후 한국의 특별활동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 개시되었다. 1954년에 한국의 국가수준 커리큘럼에 “특별활동”이 등장한 이래, 1969년의 부분 개정, 1981년의 체제 정비를 거치고, 1987년의 제5차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는 탄력적인 운영을 강조하게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의 성격을 명시함은 물론, 그 영역을 학급 활동, 학교 활동, 클럽 활동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의 본질적인 특성에 근거하고,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의 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초등 학교에서는 아동의 기본 생활 습관과 자율적인 생활 태도의 형성에 중점을 두어 아동의 자주적인 실천 활동을 중시하는 아동 중심의 교육과정이 자리 매김되고 있다.

이것은 종래의 목표와 하위 영역의 설정이 애매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활동 집단”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던 영역을, “활동 목적”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명확한 목표와 목적이 제시되어 특별활동의 주된 성격이 밝혀졌다.

한국에서는 교과 외 활동으로서 특별활동 이외에 일본의 총합적인 학습의 시간에 해당하는 재량 활동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특별활동의 존재 의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특별활동에 대한 연구가 한층 더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특별활동은 일본의 특별활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 양상이나 대응방식의 면에서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향후는 제7차 교육과정으로 강조되고 있는 “인성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의 특별활동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실천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表 1】韓國의 特別活動의 目標와 內容構成의 變遷(初等學校)

縮寫課程 改訂期日 特別活動의 名稱 「目標」의 有無	第2次敎育課程 1963年2月15日 「特別活動」 下位目標:4項目	部分改訂 1969年9月4日 「特別活動」 下位目標:4項目	第3次敎育課程 1973年2月14日 「特別活動」 과와 같다.	第4次敎育課程 1981年12月13日 「特別活動」 과와 같다.	第5次敎育課程 1987年6月30日 「特別活動」 과와 같다.	第6次敎育課程 1992年12月30日 「特別活動」	第7次敎育課程 1997年12月30日 「特別活動」	
없음	①교과활동과 긴밀한 관련 밑에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생활에 유용한 힘을 기른다. ②실천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취미를 높이고 생활에 필요한 진취적이고 명랑한 기풍과 태도를 기른다. ③아동의 적성을 발견하고 이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직업적 특수 기능을 기른다. ④자극적인 활동을 지도하고 이에 참여시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기른다.	①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생활 경험을 통하여 사회성의 신장을 꾀하고, 민주적이며 협동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의 소양을 기른다. ②취급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 생활이 되게 한다. ③다양한 자기 표현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④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신중하게 하며, 공부하고 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⑤강단의 발전을 위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는 태도를 기른다.	과와 같다.	과와 같다.	과와 같다.	과와 같다.	과와 같다.	
없음	1.목표 2.특별활동의 예 3.지도상의 유의점	1.목표 2.내용(학급활동, 아동회 활동, 클럽활동, 학교행사)의 4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 (1)지도목표 (2)활동내용 (3)지도상의 유의점 3.운영상의 유의점	과와 같다.	1.목표 2.영역별 목표 및 내용(어린이회 활동, 클럽활동, 학교행사의 3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 (1)목표 (2)내용 (3)운영상의 유의점 (1)계획 (2)지도(활동영역별로 제시) (3)평가	과와 같다.	1.성격 2.목표 3.내용 (1)내용체계 (2)내용 7.학급활동 4.학교활동 5.클럽활동 4.방법(운영방, 유의사항) 5.평가	1.성격(특별활동의 개념 정의) 2.목표 3.내용 (1)내용체계 (2)영역별내용 가.자치활동 나.계발활동 라.봉사활동 다.행사활동 4.교수·학습방법 (1)계획과 운영 (2)영역별 유의사항 5.평가	1.성격(특별활동의 개념 정의) 2.목표 3.내용 (1)내용체계 (2)영역별내용 가.자치활동 나.계발활동 라.봉사활동 다.행사활동 4.교수·학습방법 (1)계획과 운영 (2)영역별 유의사항 5.평가
特別活動의 內容構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敎育課程에서 特別活動의 位置	敎科, 反共·運德、特別活動	敎科活動、特別活動	敎科活動、特別活動	敎科活動、特別活動	敎科活動、特別活動、學校 敎育時間	敎科活動、特別活動	敎科活動、特別活動	

※參考文獻 『韓國的資源部』初等學校敎育課程解題(Ⅱ)』p.207
박경복『特別活動·裁量活動敎育課程의理解』良書院 pp.76~96에서 引자 작성